

우리금융그룹

2021-06

금융시장 브리프

2021. 06. 04.

- 빠른 경기 회복세에도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고,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도 일정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6~7월 중 국내외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주요 국 통화와 주가는 완만한 강세를 지속할 전망
 - * 예상보다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고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면 한국은행이 금년 4분기 중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이 상존하나, 현재 시장금리에는 경기 개선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 향후 추가 국채금리의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한은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국 0.50%, 미국 0.25%)
 - 국고채 금리는 경기 회복,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운용(국채수급 부담)을 반영하여 완만한 오름세(국고 3년물 5월말 1.23% → 6월말 1.24% → 7월말 1.25%)
 - 선진국 국채금리는 백신 접종에 의한 경제활동 정상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발행물량 증가로 소폭 상승(미 국채 10년물 5월말 1.59% → 6월말 1.62% → 7월말 1.64%)
 - 원화는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위안화 절상추세와의 동조화 흐름으로 강세압력이 다소 우세(원/달러 5월말 1,111 → 6월말 1,100 → 7월말 1,090)
 - 위안·유로화는 글로벌 경제 정상화 기대로 달러화 대비 소폭 강세(반면, 엔화는 소폭 약세)
 - 한·미 주가지수는 기업실적 개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배경으로 완만한 오름세 지속(KOSPI 5월말 3,204 → 6월말 3,245 → 7월말 3,290)
 - 은행업 주가지수는 시중금리 오름세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 배당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으로 양호한 상승세(5월말 2,052 → 6월말 2,090 → 7월말 2,130)

작성자: 경제·글로벌연구실 허문종 팀장(02-2173-0568)

이다은 선임연구원(02-2173-0578)

박수빈 조사원(02-2173-0556)

책임자: 경제·글로벌연구실 권영선 실장(02-2173-0569)



I. 6~7월 금융시장지표 전망

1. 금리

가. 국내금리

- 한국은행은 7.1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동결할 전망
 -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의 견조한 회복세, 대규모 초과저축에 기반한 소비 반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지 않아 한은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유지
 - 다만, 5월 금통위에서 나타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기조가 다소 매파적으로 바뀐 것으로 관측되어, 백신보급 가속화 등으로 향후 경기·고용 회복과 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지면 금년 4분기 중 기준금리가 25bp (0.50%→ 0.75%)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
 -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되더라도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화정책기조는 완화적일 것으로 판단
 - * 한국은행은 5.27일 금통위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확대에 힘입어 국내 경제성장과 물가 전망치가 크게 높아졌지만, 향후 코로나와 백신 접종 상황, 그에 따른 경제 회복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총재는 시기를 단정할 수 없지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을 질서있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고 언급
- 국고채 3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5월말 1.23% → 6월말 1.24% → 7월 말 1.25%
 - 시장금리는 경기 반등과 지표물가 상승, 확장적 재정지출에 의한 국채발행물량 증가로 상승압력이 우세하나,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 확대 부담,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기관·외국인의 견조한 투자 수요가 금리 상승폭을 제한
 - 국고채 금리(3년물)와 기준금리와의 격차(spread)가 70bp 내외로 확대되어, 현재 시장금리에는 향후 3년 이내 총 2~3차례(50bp~75bp)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금년 4분기 중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시장금리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
 - * 주요기관의 '21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한국은행 4.0, OECD 3.8, IB평균 4.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4.3

- * 14.9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3월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7조원 규모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추석(9.21일)을 전후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지급을 포함하는 5차 재난지원금 가능성이 대두(실행될 경우 7월 추경 편성, 8~9월 지급이 유력)
- * 이주열 총재는 5.27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현재 채권시장에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계획(상반기중 5~7조원)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3~4월중 3조원에 이어 당초 계획대로 6월안에 잔여금액(2~4조원)을 추가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국은행은 6.3일 1.5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추가 실시)
- * 3년물-기준금리 스프레드(bp): 2018.5.21일 75 → 2019.8.19일 -41(단기 저점) → 2021.3.15일 74(2년10개월래 최대) → 6.2일 71
- 국고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5월말 2.18% → 6월말 2.23% → 7월 말 2.25%
 - 경기 개선과 지표물가 상승, 추경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상승압력이 우세하나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부담, 한은의 국채 매입으로 금리 상승폭이 제한
 - * 10년물-3년물 금리 스프레드(bp): 2011.1.13일 107 → 2019.8.28일 6(단기 저점) → 2021.5.14일 104(10년4개월래 최대) → 6.2일 98

국내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4월	5월	6월(F)	7월(F)
기준금리	기말, %	0.50	0.50	0.50	0.50	0.50	0.50
국고채 3년	기말, %	0.98	1.25	1.14	1.23	1.24	1.25
국고채 10년	기말, %	1.71	2.20	2.13	2.18	2.23	2.25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5.21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5월 국고채 금리 전망에 대한 평가(C등급1))

- 5월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3%로 전망치(1.16%)를 크게 상회
- 5월 금통위 직후 한은 총재 발언을 시장에서 매파적으로 해석하면서 국고채 금리의 상승폭이 예상보다 확대

¹⁾ 대표 금리지표(국고채 3년)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bp 이하는 S등급, ±3bp 이하는 A등급, ±5bp 이하는 B등급, ±5bp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나. 해외금리

- 미 연준은 6.15~16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0.25% 상한)할 전망
 - 연준은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 도입을 통해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완전 고용, 물가상승률 2%)으로 충분히 회복될 때까 지 제로금리 정책을 장기간 유지할 방침임을 시사
 - * 연준은 4.27~28일 FOMC에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인 상 승 이후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속도를 현 수준에서 유지. 다만, 5.19일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이 빠른 경기 회복 속도가 지속될 경우 향후 회의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계획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5월말 1.59% → 6월말 1.62% → 7월말 1.64%
 - 연준의 국채 매입 지속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확대에 의한 경제 조기정상 화,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지표물가 상승으로 미국 국채금리는 점 진적으로 상승
 - * 5.30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명으로 지난 3.2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백신 접종률(접종 회차 기준)은 1차 51.1%, 2차 41.2%
 - * 1분기 미국 GDP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6.4%(전기대비연율) 성장
 - * 4월 미국 CPI와 core PCE 물가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4.2%, 3.1%로 2008년 이후 최대폭 상승하였으나, 연준은 기저효과, 유가 상승, 공급망 병목 현상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5월말 -0.19% → 6월말 -0.17% → 7월말 -0.15%
 -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PEPP)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확대, 하반기 EU 경제회복기금 집행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로 독일 국채금리는 상승 (마이너스 금리폭 축소)
 - * ECB는 4.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 규모를 1.85조 유로로, 기한을 2022.3월로 각각 유지한 가운데, 채권 매입속도를 1분기보다 높이겠다는지난 회의 결정내용을 재확인
 - * 일반 병·의원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허용한 이후 접종 속도가 가속화(5.28일 1차 접종 률 43.2%)되어 5.19일부터 베를린의 봉쇄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

- * 5.20일 유럽의회가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의 세부사항에 대해 EU 회원국과 합의함에 따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회복이 빨라질 전망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5월말 0.80% → 6월말 0.82% → 7월막 0.84%
 - 영란은행(BOE)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세, 글로벌 금리 오름세와의 동조화로 영국 국채금리는 상승압력이 우세
 - * BOE는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8월 회의 전까지 자산매입 속도를 주간 34억 파운드 (-10억 파운드)로 낮추기로 했으나, 기준금리와 연간 자산매입 목표액(8,950억 파운드) 모두 동결하면서 테이퍼링이 아닌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
 - * 영국 내 인도발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5.26일 기준 주간 6,959건으로 전주(3,535 건)보다 2배 증가
 - * 영국 정부는 7월 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1회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5.28일 기준 1차 접종률은 58.6%, 2차 접종률 37.3%)
 - * 4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9.2% 증가하고 5월 서비스업 PMI도 61.8로 상승하면서 내수가 개선되고 서비스 업황도 반등하는 모습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5월말 0.08% → 6월말 0.08% → 7월말 0.09%
 - 글로벌 경기 회복, 일본은행(BOJ)의 장기물 목표금리 변동범위 확대로 국채 금리는 상승압력이 다소 우세하나, 방역조치 강화, 올림픽 개최 불확실성,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상승폭은 제한
 - * 2021.1분기 GDP는 긴급사태 발령에 따른 개인소비 부진으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 장(전기대비연율 -5.1%)
 - * 최근 인도발 변이바이러스가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9개 지역에 발효중인 3차 긴급 사태 시한을 5.31일에서 6.20일로 연장했지만,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7.23일 개막 예정) 강행 의지를 고수하면서 도쿄 전·현직 의원 130명이 대회 취소를 요구
 - * 5.26일 스즈키 히토시 BOJ 정책심의위원은 코로나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시 9월말 기한인 기업자금융통지원책을 반년 더 연장하는 추가 금융완화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발언

해외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4월	5월	6월(F)	7월(F)
미국 기준금리	기말, %	0.25	0.25	0.25	0.25	0.25	0.25
미국 국채 10년물	기말, %	0.91	1.85	1.63	1.59	1.62	1.64
독일 국채 10년물	기말, %	-0.57	-0.10	-0.20	-0.19	-0.17	-0.15
영국 국채 10년물	기말, %	0.20	0.90	0.84	0.80	0.82	0.84
일본 국채 10년물	기말, %	0.03	0.10	0.09	0.08	0.08	0.09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5.21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5월 미 국채금리 전망에 대한 평가(C등급2))

- 5월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59%로 전망치(1.66%)를 크게 하회
-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기대보다 덜 양호한 경제지표(예: 소매판매, 고용)로 미국채금리에 하방 조정 압력이 확대

2. 환율

-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원화 강세) 전망: 5월말 1,111 → 6월말 1,100→ 7 월말 1,090
 -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위안화 절상추세와의 동조화 흐름, 글로 벌 경기 반등에 의한 위험자산 선호에 힘입어 원화 강세압력이 점증
 - * 통관수출(전년동월대비, %): 2월 9.3 → 3월 16.4 → 4월 41.2 → 5월 45.6
 - * 무역수지 흑자(억달러): 2월 25.0 → 3월 41.1 → 4월 4.3 → 5월 29.3
- 위안/달러 환율 소폭 하락(위안화 강세) 전망: 5월말 6.37 → 6월말 6.35 → 7월말 6.33
 - 중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로 외국인 채권·주식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위안 화가 강세를 시현하겠으나, 외화당국의 직·간접 시장개입이 절상폭을 제한
 - * 2021.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도 기저효과와 대내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 소비·투자· 수출이 모두 개선되며 전년동기대비 18.3%로 급등
 - * 인민은행이 5.11일 2021년 1분기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함에 따라 위험자산 가격에 우호적으로 작용

²⁾ 대표 금리지표(국고채 3년)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bp 이하는 S등급, ±3bp 이하는 A등급, ±5bp 이하는 B등급, ±5bp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 * 인민은행이 6.15일 급격한 위안화 강세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화 지준율을 2%p 인상
- 엔/달러 환율 소폭 상승(엔화 약세) 전망: 5월말 109.7 → 6월말 109.8 → 7 월말 110.0
 - 수출경기 회복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방역조치 강화, 불투명한 올림픽 개최 여부, 미·일 금리차 확대로 소폭 약세
 - * 일본 경상수지(조엔): 2020.12월 1.2 → 2021.1월 0.6 → 2월 2.9 → 3월 2.7
 - * 노무라종합연구소는 3차례 긴급사태(2020년 1회, 2021년 2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4.6조엔 수준이며, 도쿄올림픽 취소시 예상 손실은 1.8조엔 규모로 추산(5.26일)
- 달러/유로 환율 소폭 상승(유로화 강세) 전망: 5월말 1.219 → 6월말 1.222 → 7월말 1.225
 - ECB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지속에도 백신 보급 가속화와 하반기 EU 경제회복기금 집행에 의한 유로지역 경기 반등 기대로 유로화는 강세
 - * 5.12일 EU 집행위원회는 백신 접종률 상승과 이동제한조치 완화로 2021년 유로존 경 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월) 3.8%에서 4.3%로 상향 조정
 - * EU 경제회복기금(7,500억유로 규모)은 6월말 비준절차 완료 후 7월부터 채권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행 규모는 550~900억 유로로 예측
 - * 유로지역 제조업PMI(기준선=50): 2월 57.9 → 3월 62.5 → 4월 62.9 → 5월 62.8

주요국 화율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4월	5월	6월(F)	7월(F)
원/달러	기말, 원	1,087	1,125	1,112	1,111	1,100	1,090
위안/달러	기말, 위안	6.53	6.50	6.47	6.37	6.35	6.33
엔/달러	기말, 엔	103.0	108.0	109.3	109.7	109.8	110.0
달러/유로	기말, 달러	1.228	1.195	1.202	1.219	1.222	1.225

주1: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5.21일) 기준 주2: 2020.12월 원화는 12.30일 기준, 원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는 12.31일 기준 종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5월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한 평가(S등급)3)

5월말 원/달러 환율은 1,111원으로 전망치(1,110원)에 부합

³⁾ 대표 환율지표(원/달러)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3. 주가지수

- KOSPI 상승 전망: 5월말 3,204 → 6월말 3,245 → 7월말 3,290
 - 밸류에이션 부담에 의한 차익실현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의 양호한 성장 전망,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실적 개선,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 힘입어 KOSPI 지수에 상승압력이 우세
 - * 5월 수출은 9대 주요 지역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45.6% 급증(중국 +22.7%, 미국 62.8%, EU +62.8%, 아세안 +64.3%, 중남미 +119.3, 인도 +152.1%)
 - * OECD는 5.31일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가 2022년까지 견조하고 안정적 (robust and stable)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2021년 성장률 전망치를 3.8%(3월 대비 +0.5%p)로 상향 조정
 - * 5월 중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조원): 개인 +6.7, 외국인 -8.5, 기관 +1.8
 - * 12개월 선행 PER(기말, 배, Bloomberg): 2021.3월 13.1 → 4월 12.4 → 5월 12.2
- 은행주 상승 전망: 5월말 2,052 → 6월말 2,090 → 7월말 2,130
 - 국내 은행주는 대출 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등 정책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에 따른 시중금리 오름세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배당 관련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 KOSPI 대비 양호한 상승흐름을 예상
 - * 금융위원회(4.29일)는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되고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기준의 적용 대상을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해나갈 계획(1단계로 2021.7월부터 시가 6억원 초과 주택 구매자와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차주에게 적용)
 - * 올해 2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은행권이 배당을 일시 축소(배당성향 20%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6월말 배당제한 조치가 종료되고 하반기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배당정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
- KOSDAQ 상승 전망: 5월말 982 → 6월말 995 → 7월말 1,010
 -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단기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기업실적 개선, 한국형 뉴 딜정책 관련 산업 수혜, 주요 벤처기업 IPO 추진으로 KOSDAQ 지수가 상승
 - * 5월 중 주체별 코스닥 순매수(조원): 개인 +1.0. 외국인 -0.5. 기관 -0.5
 - * 5.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부분 재개
- S&P500 상승 전망: 5월말 4.204 → 6월말 4.245 → 7월말 4.290

- 밸류에이션, 증세 추진,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담요인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 종 가속화에 따른 경제활동 조기정상화,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S&P500 지수에 상승압력이 점증
 - *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피해지원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총 5.9조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과,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총 3.5조달러 규모의 증세안을 마련. 소득 지원을 위한 경기부양책(American Rescue Plan 1.9조달러)은 3월에 의회를 통과하여 집행이 확정되었고, 인프라투자(American Job Plan 2.3조달러, American Families Plan 1.8조달러)와 증세 계획은 의회에서 논의 중

국내 주가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4월	5월	6월(F)	7월(F)						
KOSPI	기말	2,873	3,310	3,148	3,204	3,245	3,290						
은행업 주가지수	기말	1,557	1	1,942	2,052	2,090	2,130						
KOSDAQ	기말	968	1,080	983	982	995	1,010						
S&P500	기말	3,756	4,260	4,181	4,204	4,245	4,290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5.21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5월 KOSPI 전망에 대한 평가(S등급)⁴⁾

- 5월말 KOSPI는 3,204로 전망치(3,180)에 부합
- ※ 5월 은행업 주가지수 전망에 대한 평가(B등급)
- 5월말 은행업 주가지수는 2,052로 전망치(1,970)를 상회
- 시중금리 오름세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로 은행주 상승압력이 예상보다 강화

⁴⁾ KOSPI, 은행업 주가지수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5월중 국내금리 동향

■ 한국은행은 5.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동결

* 수출·투자 호조와 재정 효과를 반영하여 올해 GDP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4.0%(+1.0%p), 1.8%(+0.5%p)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코로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고 수요측면의 물가 상승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언급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9bp 상승(4월 1.14% → 5월 1.23%)

- 옐런 미 재무장관의 테이퍼링 가능성 언급으로 국채금리는 5.4일 1.16%까지 상승하였으나, 외국인 순매수 확대로 5.23일 1.09%로 반락한 후 연내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5.31일 1.23%로 급등 마감
 - *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5.4일 추가적인 재정지출로 인한 경제 과열 가능성으로 완만한 금리 인상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발언하였으나, 직후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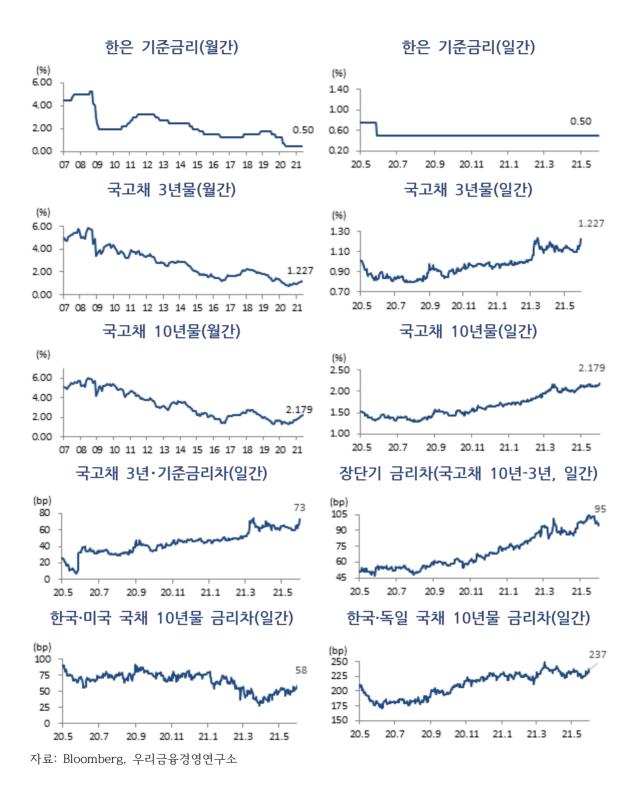
■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5bp 상승(2.13% → 2.18%)

- 경제지표 개선으로 5.14일 2.16%까지 상승한 후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부 담, 외국인 순매수 확대로 5.17일 2.12%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한은 총재 발 언을 시장에서 매파적으로 해석하면서 5.31일 2.18%까지 높아짐
 - * 4월 취업자 수는 공공일자리 증대, 서비스업 개선으로 전년동월대비 65.2만명 증가(6년 8개월만에 최대폭)했으며, 5월 통관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45.6% 급증

국내금리

		단	연간				분	기		월간			
		위	2018	2019	2020	20.2/4	3/4	4/4	21.1/4	21.2월	3월	4월	5월
	기준금리(기말)	%	1.75	1.25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금리	국고채(3년, 기말)	%	1.817	1.360	0.976	0.842	0.846	0.976	1.133	1.020	1.133	1.141	1.227
	국고채(10년, 기말)	%	1.948	1.683	1.713	1.373	1.430	1.713	2.057	1.960	2.057	2.128	2.179
	국고3년-기준금리	bp	7	11	48	34	35	48	63	52	63	64	73
스프	국고채10년-3년	bp	13	32	74	53	58	74	92	94	92	99	95
레드	한국-미국(10년)	bp	-74	-23	80	72	75	80	32	56	32	50	58
	한국-독일(10년)	bp	171	187	228	183	195	228	235	222	235	233	237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5월중 해외금리 동향

■ 미 연준은 4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0.25% 상한)에서 동결

•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인 상승 이후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속도를 현 수준에서 유지

■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4bp 하락(4월 1.63% → 5월 1.59%)

• 4월 물가지표 상승으로 5.12일 1.69%까지 급등했으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이라는 연준의 견해가 유지되고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5.25일 1.56%까지 하락한 후 소폭 반등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1bp 상승(-0.20% → -0.19%)

- 백신 접종 확대, 봉쇄조치 완화로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5.20일 -0.11%까지 급등했으나, ECB 인사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발언 이후 5.31 일 -0.18%로 반락
 - * 5월 독일 Ifo 기업체감지수는 기업의 향후 6개월 경기전망이 개선되면서 99.2로 급등
 - * 5.22일 라가르드 ECB총재는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5.26일 ECB 파네타 이사도 유로존 경제는 회복 초기단계이고 금리 급등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채권매입 축소를 논의하기에 이르다고 발언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bp 하락(0.84% → 0.80%)

- BOE의 긴축 전환 우려 완화로 5.9일 0.77%로 내린 후 경제지표 개선으로 5.13일 0.90%로 반등했으나, 인도발 변이 확산세로 5.31일 0.80%로 반락
 - * 영국은 6.21일 봉쇄조치를 완전해제하는 대신 인도발 변이 확산세 우려로 백신 접종자라도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10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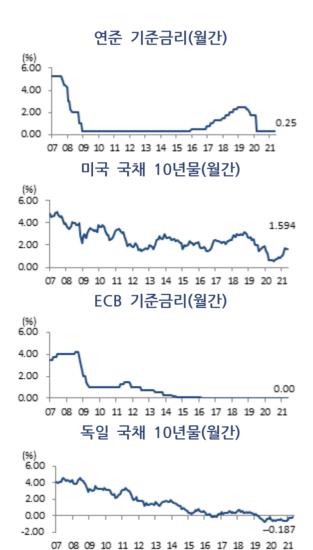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1bp 하락 (0.09% → 0.08%)

- 닛케이 지수 약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5.11일 0.07%까지 하락한 후 미국 물가 급등에 대한 경계로 5.13일 0.09%로 반등했으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5.31일 0.08%로 마감
 - * 5.24일 미국 국무부는 일본 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

=		
$\overline{\alpha}$	14	
~	_	

		단		연간			분	기			월	간	
		위	2018	2019	2020	20.2/4	3/4	4/4	21.1/4	21.2월	3월	4월	5월
미국	기준금리(기말)	%	2.50	1.7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미국	국채(10년, 기말)	%	2.684	1.918	0.913	0.656	0.684	0.913	1.740	1.405	1.740	1.626	1.594
독일	기준금리(기말)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일	국채(10년, 기말)	%	0.242	-0.185	-0.569	-0.454	-0.522	-0.569	-0.292	-0.260	-0.292	-0.202	-0.187
α \neg	기준금리(기말)	%	0.75	0.75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영국	국채(10년, 기말)	%	1.277	0.822	0.197	0.172	0.229	0.197	0.845	0.820	0.845	0.842	0.795
이ㅂ	기준금리(기말)	%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일본	국채(10년, 기말)	%	-0.003	-0.028	0.026	0.035	0.026	0.026	0.093	0.153	0.093	0.090	0.080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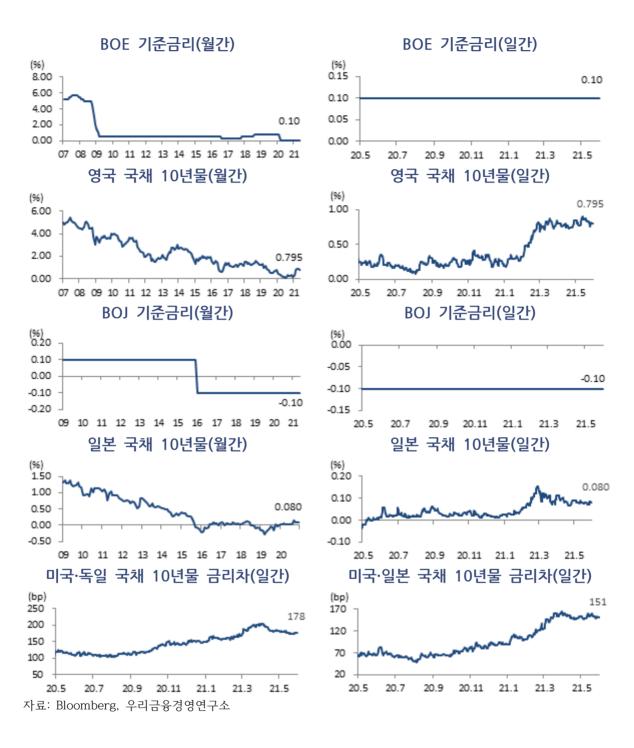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5월중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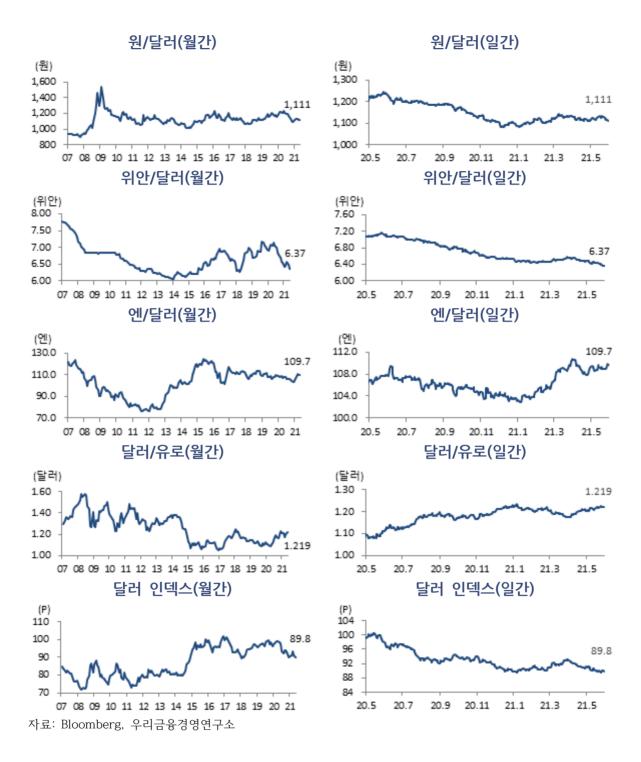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대비 0.1% 하락(원화 강세, 4월 1.112 → 5월 1.111)

-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도 관련 역송금 수요로 5.17일 1,135까지 올랐으나, 국 내 수출 호조, 연준 인사들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유지 발언에 의한 달러 약 세(달러지수: 4월말 91 → 5월말 90), 위안화 강세에 연동하여 하락 마감
 - * 외국인 국내증시 순매수(조워): 2월 -2.0 → 3월 -1.5 → 4월 +0.1 → 5월 -9.0
- 위안/달러 환율은 1.6% 하락(위안화 강세, 6.47 → 6.37)
 - 중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외국인 증권자금 유입에 힘입어 위안/달러 환율이 6.4위안을 하회하며 위안화 가치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절상
 - * 중국 통관수출(전년동월대비, %): 1월 24.7 → 2월 154.8 → 3월 30.6 → 4월 32.3
 - * 5.25일 홍콩거래소와 상하이·선전거래소 교차거래 시스템(후강퉁, 선강퉁)을 통해 유입된 일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217억위안으로 최고치를 경신
- 엔/달러 환율은 0.3% 상승(엔화 약세, 109.3 → 109.7)
 -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불구하고, 긴급사태 연장에 따른 일본 경기회복세 둔화, 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엔화는 소폭 약세를 시현
 - * 미국-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차(bp, 기말): 3월 165 → 4월 154 → 5월 151
- 달러/유로 환율은 1.4% 상승(유로화 강세, 1.202 → 1.219)
 - 유로존 제조업 경기 호조,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서비스업 경기 반등 기대감
 으로 유로화 가치가 절상
 - * 유로지역 서비스업PMI(기준선=50): 2월 45.7 → 3월 49.6 → 4월 50.5 → 5월 55.1

주요 화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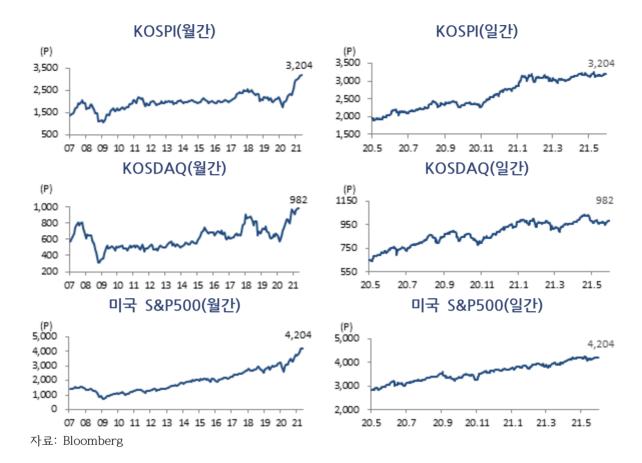
·														
		연간			분	기		월간						
	2018	2019	2020	20.2/4	3/4	4/4	21.1/4	21.2월	3월	4월	5월			
원/달러(기말)	1,111	1,156	1,087	1,203	1,170	1,087	1,132	1,124	1,132	1,112	1,111			
위안/달러(기말)	6.88	6.96	6.53	7.07	6.79	6.53	6.55	6.47	6.55	6.47	6.37			
엔/달러(기말)	110.0	108.5	103.0	107.7	105.7	103.0	110.7	106.6	110.7	109.3	109.7			
달러/유로(기말)	1.145	1.122	1.228	1.121	1.171	1.228	1.174	1.208	1.174	1.202	1.219			
달러지수(기말)	96.2	96.4	89.9	97.4	93.9	89.9	93.2	90.9	93.2	91.3	89.8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5월중 주가지수 동향

- KOSPI 지수는 전월말 대비 1.8% 상승(4월 3,148 → 5월 3,204)
 - 연준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우려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강화, 수출 증가에 의한 국내 기업실적 개선 기대에 힘입어 신고점을 경신(5.10일 3,249)했으나,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로 반락
 - * 5월 중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조원): 개인 +6.7, 외국인 -8.5, 기관 +1.8
 - 국내 은행주는 5.7% 급등(코스피 대비 3.9%p 초과 상승)
 - 시중금리 오름세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로 KB금융(+7.5%), 신한금융(+6.1%), 우리금융(+4.2%), 하나금융(+2.0%)이 모두 상승
 - * 5월중 외국인 순매수(억원): 신한 +377, 우리 -293, KB -424, 하나 -1,020
 - 글로벌 Top 50 은행주는 5.5% 오름세(아시아 Top10 은행주도 5.1% 상승)
- KOSDAQ 지수는 0.2% 소폭 하락(983 → 982)
 - 공매도 재개 영향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가중되며 약보합 마감
 - * 5월 중 주체별 코스닥 순매수(조원): 개인 +1.0, 외국인 -0.5, 기관 -0.5
- 선진국(MSCI DM)과 신흥국(MSCI EM) 증시는 각각 1.3%, 2.1% 오름세
 - 중국(+4.9%), 유럽(+1.6%), 미국(+0.5%), 일본(+0.2%) 증시가 일제히 상승
- S&P500 지수는 0.5% 상승(4,181 → 4,204)
 - 고용지표 회복세 둔화로 연준의 조기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5.7일 4,233)했으나,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 가상화폐 가격 급 락 등으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반락
 - * 미국의 4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26.6만명)은 전월(77만명) 대비 큰 폭 축소
 - *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가상화폐거래소의 나스닥 상장일을 고점(4.14일 6.4만 달러)으로 미국·중국 당국의 규제,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 등으로 급락(5.31일 3.7만 달러)



* 동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금융시장지표 전망 등)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